

설 연휴 광주 대중교통 새벽까지 연장... 공영주차장 무료

8~12일 교통대책상황실 운영...지하철, 고속열차 막차시간 연계 전통시장 18곳 주정차 단속 완화...공영주차장 311곳 무료 개방

광주시가 설 연휴기간 대중교통을 새벽 시간대까지 연장 운행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돕는다.

광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상황실(062-613-4022)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대책상황실은 지하철·시내버스 연장운행, 국·시립묘역 등 시내버스 교통편의 제공, 혼잡지역 교통지도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귀성객과 시민의 이동을 돕는다.

시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광주송정역·종합버스터미널 기준 새벽 1시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평소 자정께 운행을 마치는 지하철은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막차 도착시간(00시 21분, 00시 42분)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8일에는 광주송정역 기준 00시 57분 마지막 지하철이 출발한다.

시내버스도 늦은 밤 귀성객의 귀갓길을 돕는다.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좌석02번, 송정19번, 송정29번은 광주송정역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22시 45분부터 새벽 1시까지 노선별로 6회 추가 운행한다. 같은 기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에서는 좌석02번, 수완03번, 선운14번, 지원25번, 매월26번, 금호36번이 종합버스터미널 출발시간 기준 새벽 1시까지 노선별로 12회 추가운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시립묘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도 확대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1일 30회 증차·운행하고, 월남동-태령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

광주시는 또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송정역과 전통시장 주변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광주송정역 지하철 5번 출구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지하철 5번 출구와 상무대로 205번길 주변 택시·승용차 승하차를 금

하고, 지하철 3번 출구 주변에 입산부·장애인 및 택시, 승용차 임시 하차구역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은 완화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서부시장(화정동)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중흥동)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야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7일부터 12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 나눈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은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휴기간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9-12일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야5일시장 등 11개 전통시장 주차장과 300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 위치는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공중화장실 명절 앞 특별점검

터미널·전통시장 등 1324개소 청결 강화·방역·몰카 등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중화장실을 특별 점검한다.

광주시는 5일 "이날부터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설 명절 대비 점검에 앞서 공중화장실 308개소와 개방화장실 1016개소 등 총 1324개소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에 1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명절기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마트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관광지 화장실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 청결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관리다.

특히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화장실 비상벨과 경광등 정상 작동 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증가로 우려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화장실 내 청소 횟수를 늘려 청결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일근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위생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복한 광주" 5일 전국 최초 주민주도 통합 행정동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문인 북구청장과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주민들과 피켓을 들고 행복북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지역 내 창업자 전폭 지원

22일까지 신청...6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7일 순천대서 설명회

전남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발굴·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6일 오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패키지, 7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에서 초기창업패키지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에게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며,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올해 전국 1923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전남에선 30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올해 전국 590개 초기창업기

업을 선발하며 전남(순천대)에선 29개 내외의 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예비창업패키지 및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규모 등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예비창업패키지 및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신청은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에서 22일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사업과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비 창업자, 창업아이템 기술 보유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대재해법 시행' 대응 교육 분주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 책임자 등 교육...어로 개선 방안 논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리책임

자 및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설 온정 나눔

8일까지 복지시설 510개소 위문

전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8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510개소 1만3211명의 소외 이웃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지역특산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한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5일 담양 빛고을공동체와 여수 하안연꽃을 방문해 사랑나눔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 격려, 생활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